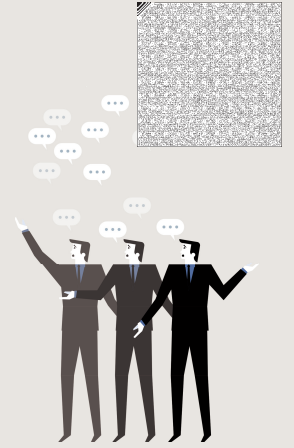


#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충실한 서울주보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78년에 시작한 서울주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평신도 논단’이라는 코너입니다.

신자들이 직접 주보에 글을 기고하여 실었습니다. 1978년 10월 29일 자 주보, 평신도 논단에 “본당 사목위원의 변(辯)”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본당이고 주임 신부님의 사목위원회에 대한 사목활동 협조 요청사항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신당동에서도 이런 협조를 부탁하시는 일이 많았었는데, 사목위원들이 불민하였던 탓으로 잘 보필하여 드리지 못하던 것을 송구스럽게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중 작년 7월에 유수철 신부님이 선종하셨을 때 큰 슬픔을 억누르고 무사하게 장례를 치렀고 또 이번 1주기 교중 미사 때에도 전체 교우들이 경건하게 미사를 올리고 또 묘소 에까지 올라가서 유 신부님의 승천을 기도하고 돌아온 것 같은 일은 의당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사목위원 일동으로서도 마음 놓이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이계중 주임 신부님께서 오신 후로 신부님이 성소(聖召) 후원회 총재로 계신 연고로 성소 후원기금 1천만원 기금의 모금운동을 벌여 신청 액수가 8백50여만 원에 이르러 아직 목표달성까지 고비가 남아있으나 곧 달성하여 드리겠다고 사목위원들이나 구장단들이 아직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신당동 본당의 사목위원들은 … 평범하게 주임신부님의 사목활동을 도와드리면서 천주님의 진리말씀을 본당구역 교중 형제자매들 사이에 사랑의 일체감을 통해서 구현시키는 일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그칠 따름이다.”

너무 자세하고 세밀하게 본당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본당이 집안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물론 본당 상황이 현재

## ● 평신도 논단 ●

어느 본당이고 주임 신부님의 사목위원회에 대한 사목활동 협조 요청사항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신당동에서도 이런 협조를 부탁하시는 일이 많았었는데, 사목위원들이 불민하였던 탓으로 잘 보필하여 드리지 못하던 것을 송구스럽게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중 작년 7월에 유 도밍고 수철 신부님이 하세하셨을 때에 큰 슬픔을 억누르고 무사하게 장례를 치렀고 또 이번 1주기 교중미사 때에도 전체 교우들이 경건하게 미사를 올리고 또 묘소 에까지 올라가서 도밍고 신부님의 승천을 기구하고 돌아온 것 같은 일은 의당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사목위원 일동으로서도 마음 놓이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이 요왕 계중 주임신부님께서 오신 후로 신부님이 성소(聖召) 후원회 총재로 계신 연고로 성소 후원기금 1천만원 기금의 모금운동을 벌여 신청 액수가 8백50여만 원에 이르러 아직 목표달성까지 고비가 남아있으나 곧 달성하여 드리겠다고 사목위원들이나 구장단들이 아직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본당 사목위원의 辯

이번 10월 2일 날은 본당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11시에 교중미사끝에 성당옥상에서 유지들의 출현으로 시루떡에 사이다 한잔씩 나누면서 전 교우들이 자축연을 베풀었고 저녁에는 양 한도 선생의 교양 강연을, 이튿날인 3일에는 청소년 체육대회를 열어 男女老少 교형자매 수백명이 적극 참가하고 어느 분은 김밥 도시락을, 어느 분은 삶은 달걀 백개를, 어느 분은 플라사이다를 몇박스씩 준비하여 오셔서 모든 본당 교우들이 온종일 흐뭇한 일체감(一體感)에 젖었던 것도 다행스러웠다고 자위하고 있다.

신당동 본당의 사목위원들은 무슨 특이하게 내세울만한 자랑거리 사업도 한 일이 없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사과하여야 할만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다.

그저 대부분의 성당 사목위원회가 그렇듯이 평범하게 주임신부님의 사목활동을 도와드리면서 천주님의 진리말씀을 본당구역 교중 형제자매들 사이에 사랑의 일체감을 통해서 구현시키는 일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그칠 따름이다.

신당동 천주교회 사목위원회 회장 최 한웅

와 비교하면 신자 숫자나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성당이 옛 고향집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 천주교회 상황으로 볼 때도 주보에 평신도의 목소리를 담은 코너를 지정한 것

은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세계 교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평신도의 교회 참여’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새로운 교회상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큰 업적은 교회의 본질을 ‘교계제도’가 아닌 친교의 공동체로 새롭게 인식, 성직자·일반 신자도 모두 동등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정의한 것”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의 역할을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계 사제직’과 구분되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개념도 이때 도입되었습니다. 평신도의 교회 참여라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회는 평신도를 “각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도구요 증인”(교회헌장 33항)으로 인정하여 세속의 복음화와 성화를 위한 고유한 사도직 임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서울주보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